6주차 자료 / 칼럼 개요 / 2025. 4. 11.

20251617 김준성

|  |  |
| --- | --- |
| 항목 | 칼럼에 쓸 내용 |
| 최근 나의 관심사 | -소재(인공지능과 나 혹은 미디어와 나)와 관련된 관심사 써 보기  최근 AI 사이트 일명 챗지피티를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있다. 물론 본인도 도움을 많이 받고 좋은 기능 이자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최근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의 그림체로 일반사진을 바꿔주는 유행이 일어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
| 논평 | -관심 있는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외부 의견  지브리 필터 변환에 대한 찬성의견으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진에서 지브리 필터를 적용시켜 줌으로써 지브리 특유의 감성적인 스타일을 신속하게 재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지브리 필터 변환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는 창작자의 고유한 영역인데 이것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의견 및 평가  본인의 의견으로는 챗지피티를 사용하여 지브리 필터로 변환하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찬성의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남의 창작물을 모방하면서까지 해야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음과 동시에 이 규율을 어기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과 동일시 하기때문에, 진실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있는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
| 논평의 근거 |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근거  논평의 근거는 나의 경험 과 뉴스 두가지를 사용하여 설명을 할수있을것같다. 첫번째로 나의 경험으로는,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을 하는 것이 유행인만큼 발빠르게 나의 사진을 지브리필터로 변환하는 것을 해본적이 있다. 챗지피티가 나의 일상적인 사진을 지브리스타일로 변환해준 것을 보았을 때는 신세계라고 느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브리 영화의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러한 챗지피티를 사용한 지브리스타일 변환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뉴스로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내 작업에 쓰고 싶지 않다”면서 이것이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강한 반감을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뉴스를 접한 후에 나는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사진을 챗지피티에게 보내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을 해달라고 하면 걸리는 시간은 몇분밖에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브리는 4초짜리 장면을 그리는데 1년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영화 한편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단 몇 분만에 흉내내는것은 창작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주제문 | -칼럼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중심 생각  내가 작성하는 칼럼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중심 생각은 ‘저작권 의식’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싶다. 이 생각을 전달하기위해 최근 유행하는 챗지피티를 통한 지브리 스타일 예시를 사용할 예정이다. |